

2022년 8월 21일 “예수님의 비유(10) 재판관과 과부”(눅 18:1-8)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도에 대한 고민

이야기 속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기사를 해석할 때, 집요하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출발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1 절).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대하는 믿음은(8 절), 성도를 향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것이 내가 드린 기도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하며 누리는 가장 기쁜 것은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소통을 더 원할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해결을 받는 통로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함이 즐거워서 그분을 더 알고 싶은 태도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기도의 유익

차녀로서 절실한 필요를 채워 달라고 아빠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란 일상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 많고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평안과 자유함으로 회복시키는 내면의 힘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에 더하여 고난과 고통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겔 9:9-10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짙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난무하고 그 결과들이 포횡하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는 죄악이 들끓고 국가적 멸망이 눈 앞에 닥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호 4:6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호 6:3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것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

이것은 오늘 날 우리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기도의 중요한 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낙심을 극복하며 더 다른 차원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발견한 어떤 자리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